

2016 Autumn

Vol. 90

희망미소



소아암 어린이 홍보대사_백이영, 이세은, 최미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우리 사회 미담의 주인공은?



안 효 섭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상임이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폭염을 밀어낸 소슬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와 열대야, 바람 한 점 없던 날씨에 짜증을 참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을을 기다렸는지요. 이 가을바람처럼 기분 좋은 미담들 또한 많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의 레스토랑 종업원인 시먼스는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실의에 빠져있는 노부인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인을 그냥 지나쳐 갔지만, 시먼스는 부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노부인에게 그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식료품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시먼스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한 여성이 와서는 물 한 병을 사고 그에게 500달러의 팁을 남기고 가면서 냅킨에 그 이유를 써 놓았습니다. “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어머니에게 가장 우울한 날을 당신이 멋진 날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이렇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은 노부인의 딸이었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 기왕이면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미담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애교 많고 장난꾸러기였던 우리 막내가 처음 진단받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름이라 입맛이 없어 잘 안 먹고 더위를 타는 줄로만 알았던 6살 어린 녀석이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나고, 다 내 탓인 것 같고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직 학교도 못 가보고, 하고 싶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어린 나이였기에...



하지만 3년 반만 항암치료를 하면 나올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던지요! 집이 지방이어서 꼬박 1년을 집중 항암 치료하느라 아빠, 형과 떨어져 병원 옆 쉼터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것 다 참고, 항상 웃고 떠들고 개구쟁이 어린이로 크는 아들이 너무 고맙고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집중치료 후 집으로 내려와서 유지항암 하느라 병원, 쉼터,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잠깐씩이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상장과 메달도 받는 녀석이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종결을 6개월 앞둔 작년 여름, 또 다시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재발이 일어났습니다. 치료 중 재발이라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다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약이 있다는 말에 감사하며 우리 가족은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치료와는 다른 고용량의 항암과 동종 조혈모세포이식까지 또 다시 서울에서의 병원 생활은 많이 힘들었지만 몸도 마음도 열심히 이겨내는 아들이 있어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아빠, 형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이식 후 아직 외래를 다니며 치료 중이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며 병원을 다닐 수 있는 지금이 너무 감사합니다. 긴 치료기간을 항상 웃으며 이겨내는 아이, 집에서 형이랑 같이 놀아서 너무 행복하다는 아이, 엄마에게 수시로 손가락 하트를 날려주는 아이, 밤마다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아이. 지성아! 고마워, 사랑해!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을 진단받은 지성이는 이식 후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삶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아는 우리

이선주 (1990년생)

2006년 10월 골육종 진단

2008년 4월 치료종결

2015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대학교 정치학 전공 졸업

현재 한국 법학석사시험 준비중



안녕하세요. 저는 골육종 완치자 27살 이선주라고 합니다. 모두들 특별한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제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17살에 골육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나 그렇듯 저 또한 예고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중3,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간지 1년이 되던 해에 부모님도 없는 타지에서 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외동딸을 키우시던 저희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저도 어릴 때부터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모든 체육 종목에서 항상 1등을 하였고, 미국에 가서도 하키, 축구, 승마 등 모든 시합을 뚝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왼쪽 무릎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부모님 모두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기숙사 방에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 다리로 이동을 하다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가 부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부러진 뼈 사이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말에 조직검사를 비롯해 각종 검사를 한 결과 골육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대다가 무릎 고통이 너무 심해 매일 물핀, 그리고 나중엔 하반신 마취상태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두 달간 미국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미국의료진은 아무래도 고향인 한국에 가서 나머지 치료를 받는 것이 길게 보아 저에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이 말한 것과는 달리 뭘 수도, 그다지 평범하게 활동을 할 수도 없게 되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힘들게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중단했던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니던 미국 고등학교의 배려였습니다. 입원실에 교과서를 쌓아놓고, 페이퍼를 쓰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고, 부모님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장 힘든 일은 또래 여자 친구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쁜 교복을 입고, 긴생머리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또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도 저렇게 예쁜 다리에 긴 생머리가 있었는데.’하면서 울었지요. 저는 그때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이런 서러움을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잘 모르니까, 열심히 일기를 썼고 그게 지금은 제 보물입니다. 지금 제가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마다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내가 어떤 힘든 일들을 다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일 년 반 동안의 치료를 끝내고 다시 미국 고등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걷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언덕 위에 있는 학교를 혼자 다녀야 했습니다. 기숙사 단체생활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과한 염려로 많은 활동을 제약 당했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와 시오케스트라 4곳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였으며, 전과목 만점으로 대학과정을 이수했고, 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도 참여하고, 전교생 앞에서 소아암에 대한 발표를 하여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체적 제약이 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밖에 없기도 했지만, 그동안 할 수 없던 공부라 누구보다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원서를 넣고 마지막 학년을 보내던 중, 수술한 다리가 다시 부러지는 민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 중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대학 인터뷰만을 기다리던 중요한 때였기에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미국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식도 참여하지 못한 채, 가장 우울한 몇 달을 보냈지만 수술을 잘 마치고 미국의 좋은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다는 미국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무사히 3년 반으로 조기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암투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오곤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견디고 또 이겨내다 보면, 다시 좋은 일은 찾아오기 마련이니 좌절하지 말고,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내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다른 상황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날 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길 바랍니다. 환우 여러분들도 이제 치료가 끝나면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병실에서의 전쟁보다 더 혹독하고 냉담한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과 오해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도 주눅 들지도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치여 바쁘게만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삶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아직 하고 싶은 것을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고 소중한지를 직접 경험했기에 앞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던 빛이 날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환우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소아암 교육 프로그램 ‘학교속으로 Go! Go!!’



치료 때문에 장기결석 또는 휴학을 경험하는 소아암 어린이들은 복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실제로 복학 후 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2006년부터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이해를 도와 소아암 어린이의 건강한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소아암 교육 ‘학교속으로 GO! G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소아암 환자의 학급 친구, 교사, 학부모 누구나 신청 가능

▶ 진행과정

신청접수(학교, 보호자 신청) → 초기상담(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육 일정 확정)
→ 교육실시 → 종결 상담 및 교육활동일지 작성 → 사후관리

▶ 교육내용

암 치료과정, 환아가 겪는 어려움, 학교로 돌아온 환아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

▶ 실시현황

가. 기 간 : 2006년 11월~2016년 8월

나. 대상인원 : 127개 기관, 7,501명 참가

다. 학년별 실시현황

학년별	미취학	초등1	초등2	초등3	초등4	초등5	초등6	초등혼합	중고등
실시횟수	38	18	11	18	25	11	14	4	13
인원(명)	3,718	477	397	509	734	473	439	112	642
합계	152회 / 7,501명								

라. 지역별 분포

지역별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	광주 · 전남	대구 · 경북	부산 · 경남
실시횟수	59	50	6	37
합계	152회			

▶ 소아암 교육의 효과성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소아암 교육 대상자 중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을 대상 (총 682명)으로 교육 전 ·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소아암에 대한 이해 향상 정도를 확인한 결과, 소아암 교육 후 질문에 대한 정답율이 평균 34.9% 상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 문	사전 정답율(%)	사후 정답율(%)
소아암은 전염 될까요? (아니오)	66.2	93
소아암은 고칠 수 있는 병일까요? (치료가 가능하다)	70.7	97.3
소아암은 왜 걸리는 걸까요? (명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63.3	90.4
소아암 치료 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까요? (예)	58.1	96.3
치료율은 얼마나 될까요? (70~80%)	31.8	87.5

▶ 신청문의

서울 · 경기 외 02-745-7671
 광주 · 호남 061-375-7671
 대구 · 경북 053-253-7671
 부산 · 경남 051-635-7671

동정이 아닌 이해를 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최수정(가명) 환자의 엄마입니다

제 딸은 2002년 5월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받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2007년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후유증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1년 늦게 입학한데다 머리숱이 적고 대사결핍으로 인해 체형이 비대하고 운동신경이 저하된 딸의 학교생활이 걱정된 저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재단의 소아암 방문교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딸은 다른 아이들의 시선에 힘들어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울어 이유를 물어보니 대머리뽕뽕, 탈모증이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2007년 4월, 처음으로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재단의 소아암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얼마나 힘든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 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었습니다. 교육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딸에게 물어봤더니 반 친구들이 자기를 좀 더 이해해주는걸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반 아이들이 놀릴 때, 반 친구가 나서서 딸의 편을 들어주어 기뻐다구요. 저 또한 기뻐합니다. 딸아이가 놀림을 받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 친구는 네가 얼마나 힘든 치료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줘. 엄마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고마워”라고 말하면서도 늘 마음 한 편이 불편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만 제 의사로 교육을 신청했고, 이후부터는 딸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아이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늘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이면 소아암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교육 후 반 친구들의 작은 엽서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딸아이가 힘든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온 걸 칭찬하고 격려해주더군요. 그리고 달리기할 때 잘 못하는 이유와 남다른 외모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지금까지 소아암 교육을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동정이 아닌 이해를 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 헌혈의 매력!

같이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재학 중인 심재륜입니다.
저희 과 안에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온 ‘헌혈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줄여서 ‘헌사모’라고 하고요, 제가 올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헌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혼자 헌혈을 하거나,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헌혈을 한 후 한 학기 또는 일 년 동안 모은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합니다. 헌혈증 기부로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 가끔은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학교에 들어오고 신입생이 되어 ‘헌사모’에 들어왔을 때는 과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군대에서 자발적인 건 아니지만, 헌혈이 이어지면서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나?’라는 반성 아닌 반성이 들었고, 제대한 후에도 헌혈을 하면서 ‘내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나의 건강함을 조금만 나누어도 아픈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헌혈의 매력을 알게 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헌혈도 꾸준히 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헌혈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혹으로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면 ‘헌사모’로서의 보람도 생깁니다.

‘헌사모’ 분들의 사랑이 담긴 헌혈증을 재단에 기부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이를 위해 했다는 것에 맘이 뭉클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러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 저희처럼 헌혈이나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전하는 다른 많은 분들께도 감사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헌사모’가 소아암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계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이 아프기 전처럼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헌사모’는 2010년부터 헌혈증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한사랑의집에서는

한 여름날의 꿈



유독 더웠던 이번 여름동안, 우체국 한사랑의 집에서는 3차례의 문화예술체험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에는 한국 고전의 우아함을 엿볼 수 있었던 발레공연과 구름빵 배우들의 발랄하고 통통 튀는 공연을, 8월에는 웅장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특히 8월 공연에는 방학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였답니다. 비록 날씨는 더웠지만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의 모습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두산중공업, 유니버설발레단, (주)문화아이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쉼터가 목욕하는 날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의 어느 날, 서울과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에 반가운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치료 중인 아이들을 위해 쉼터를 찾아준 신



세계디에프와 램서치코리아 자원봉사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냉장고부터 창틀, 화장실, 마당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까지 소독을 마쳤습니다. 내 집처럼 열심히 청소해주신 덕분에 청결한 쉼터에서 더욱 건강해질 아이들을 기대해봅니다.

>>> KCLF

지원 결정 환아

2016. 6. ~ 2016. 8.

이식비

고려은단

강○나(급성골수성백혈병) 10,300,000원
박○아(중증재생불량빈혈) 1,500만원
이○섭(재생불량빈혈) 1,500만원
인○연(골육종) 1,5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박○희(급성골수성백혈병) 200만원
장○균(급성전골수성백혈병) 550만원

더그로브

강○나(급성골수성백혈병) 970만원

램리서치코리아

박○환(급성림프모구백혈병) 3,535,912원
서○원(급성골수성백혈병) 5,660,850원

박지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희(급성골수성백혈병) 800만원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훈(중증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최○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6,514,000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

박○영(중증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박○은(골수이형성증) 1,000만원
서○원(급성골수성백혈병) 5,083,000원
안○민(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전○우(골수이형성증) 1,500만원
황○민(급성골수성백혈병) 1,300만원

송중기&팬

최○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8,486,000원

스튜디오콘크리트

안○민(재생불량빈혈) 8,423,000원

우체국공익재단

김○영(급성골수성백혈병) 500만원
박○아(중증재생불량빈혈) 500만원
박○웅(중증재생불량빈혈) 500만원
박○영(중증재생불량빈혈) 500만원

이○섭(재생불량빈혈) 500만원

이○훈(중증재생불량빈혈) 500만원

인○연(골육종) 500만원

전○우(골수이형성증) 500만원

유라코퍼레이션

김○영(급성골수성백혈병) 1,000만원

정영식,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균(급성전골수성백혈병) 750만원

포시에스

박○웅(중증재생불량빈혈) 1,000만원

홍명보장학재단

박○환(급성림프모구백혈병) 6,464,088원

재활치료비

디시인사이드송중기갤러리

정○윤(중증재생불량빈혈) 6,514,637원

메리츠화재

김○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 540만원

정○수(수모세포종) 1,395,861원

문금융

이○연(황문근육종) 6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정○수(수모세포종) 6,309,000원

익명후원자

전○우(황문근육종) 400만원

EXO카이

권○렬(급성골수성백혈병) 300만원

치료비

김건

김○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우(중증재생불량빈혈) 500만원

김○수(황문근육종) 300만원

김○옥(엡스타인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면역결핍) 500만원

안○민(중증재생불량빈혈) 500만원

이○후(배아세포종) 800만원

김○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 300만원

조○울(망막모세포종) 2,537,794원

황○검(급성골수성백혈병) 4,120,590원

램리서치코리아

김○옥(엡스타인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면역결핍) 190만원

노○문(골육종) 300만원

박○성(생식세포종양) 300만원

황○민(급성골수성백혈병) 19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이○화(급성림프모구백혈병) 300만원

박지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진○호(급성골수성백혈병) 800만원

삼성물산

전○유(망막모세포종) 300만원

최 ○(급성림프모구백혈병) 300만원

삼성전자로지텍

나○혁(신경모세포종) 1,000만원

장○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

노○문(골육종) 500만원

송중기&팬

황○검(급성골수성백혈병) 500만원

시크릿 송지은

정○준(뇌종양) 300만원

아놀자

이○인(비호지킨림프종) 5,756,350원

우체국공익재단

안○민(중증재생불량빈혈) 500만원

이○화(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이○후(배아세포종) 500만원

정○윤(급성골수성백혈병) 500만원

최○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향○민(급성골수성백혈병) 500만원

이수진(야놀자대표)

강○빈(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조○빈(백혈구부착결핍증) 2,014,670원

익명후원자

전○정(버킷림프종) 800만원

트와이스사나

이 ○(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포스코에너지

박○성(생식세포종양) 5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우(만성육아종질환) 800만원

한마음혈액원

조○빈(백혈구부착결핍증) 985,330원

한전KDN

홍○호(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 25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조○율(망막모세포종) 2,462,206원

홍명보장학재단

김○수(황문근육종) 1,000만원

윤○찬(림프모구림프종) 690만원

정○근(림프모구림프종) 800만원

최○연(중증재생불량빈혈) 800만원

최○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0만원

효성연암공장

황○검(급성골수성백혈병) 3,879,410원

SK이노베이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윤(급성골수성백혈병) 1,541,620원

간접치료비

일시간접치료비

김지호

김○호(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만원

모두투어

전○성(림프구성T세포림프종) 150만원

삼성전자로지텍

나○혁(신경모세포종) 500만원

장○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 500만원

우체국공익재단

최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00만원

호수의나라수오미

박○영(신경모세포종) 1,032,817원

진○호(급성골수성백혈병) 1,132,380원

B.A.P종업

장○미(골육종) 100만원

한○교(황문근육종) 106만원

EXO카이

박○성(생식세포종양) 100만원

정기 간접치료비(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김○준(황문근육종)

김○영(급성골수성백혈병)

김○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

박○민(망막모세포종)

신○하(림프모구림프종)

이○령(급성림프모구백혈병)

임○현(만성호산구성백혈병)

임○근(급성골수성백혈병)

정○윤(급성골수성백혈병)

황○성(망막모세포종)

디자이너사이드 유아인갤러리

정○경(급성림프모구백혈병)

KB손해보험 새마음회

이○우(생식세포종양)

KDB생명

박○희(급성골수성백혈병)

한국남동발전

송○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

최○상(급성림프모구백혈병)

가발

하이모

박○유(유잉육종)

박○영(신경모세포종)

박○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

백○현(급성전골수성백혈병)

손○빈(급성림프모구백혈병)

안○린(급성림프모구백혈병)

오○인(재생불량빈혈)

유○아(비호지킨림프종)

유○비(악성림프종)

이○연(골육종)

안○린(급성림프모구백혈병)

SGI서울보증

구○희(유잉육종)

김○윤(급성림프모구백혈병)

김○영(골육종)

김○린(급성림프모구백혈병)

김 ○(비호지킨림프종)

안○민(림프모구림프종)

이○래(급성림프모구백혈병)

이○재(연조직의악성신생물)

이○아(급성골수성백혈병)

이○주(급성림프모구백혈병)

정○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

조○정(급성림프모구백혈병)

조○미(유잉육종)

홍○연(골육종)

>>> KCLF



2016. 6.~2016. 8.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 지 강태훈 박민찬 곽원욱 구자훈 김문숙 김민정 김민혜 김세영 김소혜 김연화 김영규 김원대 김윤경 김정원 김준환 김지성 김찬중 김평기 나유정 노주희 박 검 박도원 박수연 박수현 박영룡 박지선 박혜정 방시현 배현진 백운기 변가희 변영임 서태은 성연학 양솔잎 양시은 엄채윤 오해민 오혜경 유민재 윤선아 윤은정 이경화 이도현 이명규 이보람 이상은 이석우 이선학 이세영 이예림 이정일 이종진 이현주 이홍상 임명섭 정민아 정우영 정우진 정중수 조기중 조혜진 지희원 한소라 한승연 홍다혜 홍승표 홍주경 황인정 황하나 세무법인삼보연세지점 이우재 야사노 화명점 제이헤어

일시후원

강예인 강예일 권수현 김동민 김미진 김아란 김현자 김효섭 나규일 도경수 박난희 박정연 박지연 박태성 서애리 서인원 손은호 신봉순 신지은 심주섭 우정빈 유미정 유인희 유지현 윤경환 윤미나 이성윤 이수진 이윤지 이정후 이주환 이준희 이창현 정지윤 정혜진 조민정 차재원 최돈승 최수연 최승만 최은아 최정일 최지호 표정화 홍양표 황재택 광성초6-1 구성진생일 디에이드 셋별초등학교교직원 서울청구초등학교 한흥수(신영) D:SENSE LEE SHIHCHENG 沉

후원물품

두산중공업 공연티켓 애틀미 생활용품 옴태현가족 옥수수 워드기광 가족소파 유니버설발레단 공연티켓 이단비가족 양파,마늘
전준우가족 전자레인지 정지환가족 생수 제주신라호텔 프로그램비 종근당 TV,거실장,수납장 (주)문화아이콘 공연티켓
(주)호수의나라수오미 물티슈 CMK 여름이불

헌혈증 (장)

곽원욱(16) 구도희(155) 김경수(1) 김나영(15) 김명수(20) 김상훈(50) 김성관(37) 김승민(12) 김영옥(고 김장희 모)(311) 김원기(12) 김원대(20) 김원진(5) 김중수(11) 김종용(1) 김중록(9) 김준태(1) 김태환(15) 김현동(9) 남은비(3) 박가나(1) 박기식(15) 박동미(95) 박상욱(2) 박영규(10) 박재륜(25) 배민지(2) 배상민(4) 백경아(12) 서정욱(3) 손대웅(10) 손재영(10) 신인섭(5) 심인경(50) 안병조(3) 양승진(22) 엄수진(30) 오창록(5) 우원영(15) 윤경환(12) 윤상(40) 이경선(5) 이동원(2) 이상복(5) 이의현(4) 이주원(4) 이준호(11) 임수미(50) 임창식(10) 장승규(14) 장은미(10) 장재혁(10) 장지환(12) 전수진(11) 정현우(30) 정훈직(73) 조민영(2) 조영규(10) 조용원(8) 최진선(4) 한중상(28) 한준식(4) 허진아(1) 홍민서(12) 황규석(36) 황도균(18) 황진보(21) 공군 제 8531부대 병사자율위원회(20) 드림팩토리(11) 대구테마여행(11) 로타리세계대회(7500) 송곡고등학교(147) 숙명여자고등학교(15) 신구대학 방사선과(134) 신남고등학교(26) 우체국물류지원단(90) 육군 제 7185부대(64) 으뜸안경원(30) 제 1991부대(150) 제 7882-301부대(41)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45) 종근당(110) 클립서비스(442) 테딘패밀리워터파크(63) 한국사회복지기업진흥원(7)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올인(75) 현사모(64) sk브로드밴드(36) 6사단 정비대대(47)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농 협 : 029-01-176943
새마을금고 : 9002-1557-6919-6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 체 국 : 012989-01-003327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KCLF 희망소식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제16회 형제캠프가 8월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푸른 바다가 펼쳐진 숙소, 부산의 대표 명소인 해운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4명의 형제들은 형제가 치료하는 병원, 형제가 공부하는 병원학교 등을 둘러보고 소아암에 대해 교육 받으며 형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조원들과 함께 아쿠아리움, 유람선 관람, 어묵 만들기 등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를 알아가며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함을 느낍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해피빈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완치자는 희망이다



7월 28일, 제10회 소아암 완치자 희망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15명의 완치자에게 각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완치자, 또 다른 누구의 꿈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완치자,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간호학을 전공하는 완치자.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길을 걷고 있지만 암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찬 꿈을 향해 도전하는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완치자 여러분은 소아암 가족들에게 희망이

자 꿈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올해로 115명의 완치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완치자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재단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우체국 행복나눔 소아암 어린이 가족캠프



9월 6일~7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캠프가 에버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아이들의 마음처럼 파란 하늘 아래에서

소아암 어린이 45가족 149명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우체국공익재단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꿈을 그리며 희망을 키워요



치료를 인해 잠시 미루어둔 아이들의 꿈을 다시 그리고 만들며 지켜갈 수 있도록 꿈 그리미 상자를 810명의 어린이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그리며 희망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후원, 그리미 협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완치자활동가와 함께 하는 행복한 놀이터



7월 1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완치자활동가와 함께 하는 행복한 놀이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는 레고 만들기, 건담 만들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완치자활동가와 함께 진행하며 치료 중 궁금했던 것들,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청계천 광고갤러리에 전시할 작품을 완치자활동가와 아이들이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몇 년 후면 오늘 만났던 건강한 완치자 언니, 오빠들처럼 씩씩하게 자라 희망을 전달하는 멋진 완치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삼성전자로지텍



삼성전자로지텍 임직원은 2013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의 후원금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는 '나눔상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소아암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에 필요한 준비물품을 담은 나눔상자는 매년 400여명의 어린이에게 지원됩니다. 꼭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완치를 응원합니다!

애틀미



애틀미는 소아암 어린이 쉼터와 센터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호수의나라수오미



호수의나라 수오미는 행복나눔 기부금과 순둥이 물티슈 300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인CM



전인CM 임직원은 2012년부터 매년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직원들의 저금통 및 바

자회 모금을 통해 후원금, 현물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스튜디오 콘크리트



한남동에 위치한 스튜디오 콘크리트에서 제2회 어린이날 맞이 게릴라 바자회 수익금 8,423,000원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하였습니다.

숨사탕콘서트



지난 8월 19일 5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숨사탕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입장료 대신 후원금을 내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나눔 콘서트'였습니다. 모여진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종근당, 소아암쉼터 물품과 현물증 전달



8월 4일, 종근당에서는 임직원 현물증캠페인을 실시하여, 110장의 현물증서와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기금전달

하이닥트, 서애리, 문충도, 김창록

이준환 군, 음악교육신문 콩쿠르 상금 전액 기부



음악교육신문 콩쿠르 성악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준환 군은 상금 전액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후원자의 뜻

에 따라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됩니다.

포시에스, 치료비 후원



7월 22일, (주)포시에스는 창립21주년을 맞아 소아암 치료비 1,0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B.A.P 대현 개인 팬은 6월 28일, 스물네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 EXO 디오 팬클럽에서 7월 11일, 소아암 치료 중인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 데이드 개인 팬은 8월 31일, 멤버 김규년의 스물여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김세정 갤러리에서 8월 28일, 스물한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생일을 상징하는 기부금과 현혈증, 구구단 데뷔앨범을 전달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마마무 갤러리에서 7월 23일, 화사의 스물두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송중기 갤러리에서 6월 23일, 전역 1주년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 레드벨벳 웬디 팬클럽에서 8월 1일, 데뷔 2주년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기부했습니다.
- 포미닛 현아 중국 팬클럽 '金玆雅中文首站'에서는 6월 6일, 스물다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 블랙비 비범 개인 팬에서 8월 4일, 소아암 치료 중인 어린이를 응원하기 위해 앨범을 기부했습니다.
- 비스트 이기광 공식 팬카페 '위드기광'에서 7월 4일, 정규 3집 발매를 기념하여 앨범을 보내왔습니다.
- 비스트 이기광 공식 팬카페 '위드기광'에서 8월 21일, 콘서트를 기념하여 쇼파를 기부했습니다.
- 에이핑크 오하영 팬클럽에서 7월 19일, 스물한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앨범을 기부했습니다.
- 에이핑크 윤보미 중국 팬페이지 '尹普美吧'에서 8월 13일, 스물네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 인피니트 이성열 팬페이지 '디어래빗'에서는 8월 27일, 스물여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현혈증 88매를 전달했습니다.
- 틴탑 니엘 팬사이트 '햇살니엘닷컴'에서 8월 16일, 스물세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 이승환 홍보대사의 팬인 김기은님, 신한카드 부산CRM(제니스)는 차카게살자에 동참,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기부했습니다.

희망별빛

“함께 걷자! 함께 이겨내자!”

9월 5일 토요일 저녁,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희망별빛 청계천 걷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환자 가족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희망별빛 풍선을 들고 청계천을 밝혔습니다.
 청계천 광고 갤러리에서는 ‘소아암 어린이가 꿈꾸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창립 25주년 기념 소아암 어린이 꿈 공모전 입상작이
 전시되었으며 입상한 어린이들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어린이들이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작은 별을
응원합니다

너의 곁에 항상
우리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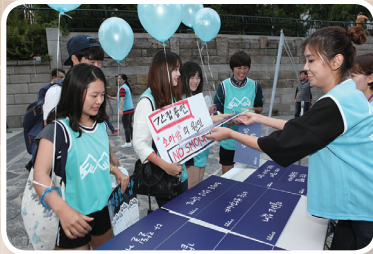
너는
보석이야

힘을 내요
슈퍼파워~

조금만
더 힘내

희망은 항상
있어요





마/음/풍/경



김도하_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만졌어요.(소아암 어린이 꿈 공모전 최우수상)

저는 스파이더맨이 되는 게 꿈이에요. 스파이더맨이 되면 거미줄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만질 수 있으니까요.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02880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5길 9-14 전화 / 02)766-7671(대) 팩스 / 02)766-7674
 www.kclf.org  cancer@kclf.org